

■ 광혜 새 교육과정의 의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김 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연세의대)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지난 몇 년에 걸쳐 CDP2004 (Curriculum Development Project 2004)를 계획하고, 2004학년도 의학과 1학년 신입생들에게 그 결실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다른 학문영역에서와 같이 의학 분야에서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의 헌신적인 희생과 성공의지가 요구된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초기의 의지가 흔들리는 때도 많다. 연세의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많은 교수진은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그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또 학생들은 새로운 방법을 잘 이해하고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수차례에 걸친 회의, 세미나, 토론... 총론은 OK!, 그러나 각론에서는 절대 양보 할 수 없다는 입장들에 대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어려운 과정과 고비를 넘기면서 최종 계획에 이르러 합의를 보았을 때는 기쁨과 함께 새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연세의대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CDP2004에서 '광혜 새 교육과정'으로 거듭난 연세의대 새 교육과정의 의의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우선 교육과정을 외형적으로 살펴보면, 의학과 1,2학년은 강의(기초의학과 임상의학)와 기초의학실습 그리고 3,4학년은 임상실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의기간은 한 학기 줄어들었고, 임상실습과정은 한 학기 늘어났다. 그러나 의학과 1,2학년을 4쿼터로 나누고 전체 교육기간을 28주에서 36주로 8주간 늘였기 때문에 강의기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교육과정의 원칙과 내용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형 강의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일방적인 강의시간 수를 줄인다.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의학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의 양적 증가가 점점 더 심화 되면서 증가하는

모든 지식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강의시간 수를 줄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강의와 실습시간을 오전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방식을 최소화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법, 예를 들면 문제중심학습(PBL) 등을 도입한다.

교육방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연세의대의 교육목표 중의 하나가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중심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도출해 내고, 학습함으로써 평생학습의 태도와 자가평가(self-assessment)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방법이다. 연세의대는 문제중심학습을 부분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교육과정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학직업 전문성(Medical Professionalism)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의학교육에서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태도, 가치관, 사회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의학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내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세의대의 광혜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를 다양하고 전문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함양시키기 위해 '의료와 사

회'라는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성숙한 직업윤리관을 함양할 것이 기대된다.

넷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의학교육과정은 대부분 필수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문적 관심 분야와 잠재적 능력은 서로 다르다. 학생들에게 관심분야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특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혜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한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선택 과목과정은 심화학습 과정의 의미가 크며, 보충 또는 부족한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강의의 의미는 아니다.

다섯째, 의학교육 출발점부터 의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임상 의학입문과정을 제공한다. 많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배우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의과대학생에게 의학교육 조기에 임상적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의사로서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세의대 광혜 새 교육과정에서는 의학과 1학년부터 환자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여 의학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완벽한 교육과정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적 요구가 달라지면 교육과

정은 또 변화해야 한다. 연세의대 교육과정도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교육과정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탄생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연세의대의 광혜 새 교육과정이 최근 변화를 시도하는 많은 의과대학에게 주는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광혜 새 교육과정이 잘 정착되어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며, 연세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교육과정이 되기를 바란다.